

벤치마킹과 양돈 생산성



최진호 소장
(최진호연구소, 119양돈컨설팅 그룹 고문)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앞서가는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로 하여 후발 업체가 이를 모방하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일본의 경제가 성장해 온 과정을 연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그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곤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매

우 잘 적용하였다고 한다.

오래 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일이다. 어느 휴일 차를 타고 바닷가로 놀러 나간 일이 있었다. 해변의 모래밭 중에서 물가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모래밭이 잘 다져져 있고 물기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다가 어느 정도 단단하여 자동차가 충분히 다닐만 하였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의 백사장 위를 가다 서다 하며 천천히 드라이브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가져 보는 망중한(忙中間)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내차 뒤에는 다른 차 두 대가 따라 오고 있었다.

얼마쯤 가다가 해변에 굴곡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차를 직선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느 부분인가 모래가 마르고 다져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곳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려다 보니 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가속기 페달을 밟아 보아도 바퀴만 헛돌 뿐 차는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낭패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차 뒤에 따라오던 2대의 차들은 밧도 모르고 나만 따라 오다가 역시 모래에 빠져서 내차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뒤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나만 따라 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벤치 마킹이란 앞서 가는 모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사례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잘 취사선택(取捨選擇)하여 모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점을 본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의 여건과 우리의 여건이 다르므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권이 부실해지고 일본경제가 어려워지자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마치 맹목적으로 앞차만 따라 가다가 함께 모래밭에 빠진 경우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일찍부터 외국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종돈과 배합사료 원료가 자유롭게 수입되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기구나 설비가 개발되었다 하면 오래가지 않아 국내에도 보급되곤 하였다. 우리나라 양돈인들의 양돈에 관한 평균 지식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 양돈인과 비교해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소위 격리 조기 이유(segregated early weaning, SEW) 방식 또는 멀티 사이트(multi-site) 방식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

던 무렵, 얼마되지 않아서 국내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져서 웬만한 양돈인이라면 실행은 하지 못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마침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그 곳의 양돈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이만큼 우리나라 양돈인들은 최신 정보를 비교적 빨리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기야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모돈을 보유하고 자돈을 생산해서 25kg까지 키워내는 농장과 그 이후의 자돈을 비육 시키는 농장이 구분되어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멀티 사이트의 하나인 투-사이트(2-site) 방식은 원래부터 실천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이토록 빨리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생산성에 있어서 크게 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 양돈산업을 돌아보건데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최신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이라 생각된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실로 우직할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다. 모든 일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서 결과의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양돈산업으로부터 벤치 마킹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養豚**

벤치 마킹이란 앞서 가는 모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례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잘 취사선택(取捨選擇)하여 모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점을 본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의 여건과 우리의 여건이 다르므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